

이와키[いわき]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보관 방법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埼玉県川口市戸塚東2-33-33
- 분 야 : 각종 용기 제조
- U R L : <http://www.rocknroller-jp.com>

2) 기업 소개

□ 전문화로 승부

- 이 회사는 진공성형¹⁾은 물론 사출성형²⁾에서도 독창적인 생산 노하우를 가진 각종 용기를 생산하고 있음
- 각종 용기를 금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으로 진공성형 용의 금형이라면 최단 3일이면 가능함
-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집적회로(IC)용과 휴대전화 렌즈 등과 같은 규격제품도 만들고 있음
- 1년 전부터 자동차부품용 플라스틱 용기도 생산하고 있음
-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은 소형 컨테이너에 스티로폼을 깔고 부

1) 진공성형 : 플라스틱 성형 가공법의 일종. 플라스틱판 가장자리를 클램프로 하형에 압착시켜 놓고, 위에서 히터로 가열하여 충분히 연화(軟化) 되었을 때 형 속의 공기를 빼내어 성형하는 방법으로서, 두께가 얇은 성형품을 만드는 데 적합

2) 사출성형 : 플라스틱 성형 가공법의 일종. 열가소성수지를 성형하는 방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. 매우 작은 것부터 무게 10kg에 이르는 큰 것까지 성형할 수 있으며, 반복해서 사출하여 대량생산을 할 수 있으므로 작업능률이 높음

품을 수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스티로폼은 부품에 묻은 기름이 스며들면 더러워지고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

- 이 같은 단점 때문에 보관이나 운송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동차업체들로부터 기존의 스티로폼에서 플라스틱 용기로의 전환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음
- 그래서 이 회사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, 이 제품은 점차 소형·경량화되어 가는 부품을 담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
- 도어밀러 케이스와 테일 램프, 브레이크 패드 등, 다양한 부품을 수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공급하는 한편 완충성을 겸비한 폴리에틸렌 소재를 이용한 용기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- 대부분 다품종 소량생산이기 때문에 시제품 단계에서부터 부품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으며, 이미 15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

□ 렌즈 가공으로 용기제조 사업을 확대하다

- 한편 이 회사는 비구면(非球面) 유리렌즈³⁾ 가공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양산하기 전 단계의 시제품 및 연구 개발에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음
- 사실 용기제조와는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유익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음
- 렌즈 안에 곡율(曲率)이 다른 비구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의 정밀도와 표면처리 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적인 가공기술을 필요로 함

3) 비구면 유리렌즈 : 유리를 깎아서 동그랗게 만드는 구면렌즈와는 달리 유리를 가열해 금형틀로 찍어내는 프레스렌즈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이나 디지털 카메라 광저장장치 등에 쓰이는 렌즈의 일종임

- 이러한 정밀가공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용기제조 사업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
- 다품종 소량의 일관된 생산 체제에서 사용자의 제품을 보호하는 각종 용기를 공급해온 이 회사는 현재 차세대 반도체 IC 칩의 용기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음
- 먼지와 같은 미세한 이물질로부터 IC칩을 보호해야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경쟁업체들 가운데서 아직 이를 다루고 있는 용기제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규격화만 가능해진다면 시장선점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작업 현장에서 부품을 보관하고 운반하기 위한 전용 용기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, 점차 자동화되는 설비에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

□ 성공 요인

- 이 회사가 주로 유용한 비즈니스를 포착하는 기회로 자주 활용하는 것이 전시회임
- 일반적인 영업 활동에서는 좀처럼 고객과의 접점을 가지는 것이 어렵지만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출전하는 것만으로도, 많은 관계자에게 제품이나 기술력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임
- 그 동안 다양한 업종의 거래처에게 각종 용기를 공급할 수 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음
- 일본의 오랜 경기침체로 지금은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 경기가 회복되면 점차 대량생산 등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함